

‘농도’ 전남, 영농철 맞아 농촌인력 수급 ‘안간힘’

농번기 6월까지 84만명 일손 필요
계절근로자 입국 목표치 27% 불과
공공형근로·중개센터 통한 지원
도, 전 직원 농촌일손돕기 적극 참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극심한 농촌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전남도가 공공 인력 지원 및 유휴 인력 모집 등 인력 수급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 봄철 농번기 도내 주요 작물 작업 면적은 4만3600ha, 소요 인력은 약 84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작물별로는 무안·신안·고흥 등에서 양과 농가에 12만3000명, 나주의 배 농가에 11만명, 고흥·신안 등의 마늘 농가에 7만4000명, 영암 고구마 농가에 9만7000명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소요 인력의 40%인 33만6000명 가량을 농촌인력중개센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봉사 등 공공분야 인력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4월 말 기준 322명이 배정된 공공형 계절근로자 입국은 100여

명, 5496명이 배정된 계절근로자 입국은 1500여명에 불과해 목표치의 27.5%만 해소된 상황이다. 다만 전년 대비 배정 인원이 대폭 확대돼 5월 초까지 목표인력이 대부분 입국한다면, 영농철 농가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경우 고령농이나 취약농 등 장기간 인력이 필요치 않고, 단기 투입을 원하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숙소 및 급여 등을 지역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농가에 배치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해 2개소, 70명에 해당했던 공공형 계절근로 인원을 올해 8개 시·군, 10개소, 322명으로 대폭 늘렸다. 일반 계절근로자 역시 근로관리 등을 강화하고 전년(2274명) 대비 2.4배 많은 5496명을 배정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9개 시·군, 37개소에서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경우 올해는 농협본부에서 광역형 중개센

터를 새롭게 도입하며 일손 집중시기 농촌인력이 필요한 지역간 조정 능력을 강화했다.

기존 농촌인력중개센터의 경우 지역단위로 운영됐기 때문에 기후 및 농가 상황 변화로 유휴인력이 발생했을 때 시·군간 교류 운용이 어려웠는데, 광역형 중개센터 도입으로 시·군간 인력 배분도 실시간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대학생·청년 등으로 이뤄진 일손돕기 자원봉사자와 퇴직자, 가사노동자 등 유휴인력에 대한 시·군별 모집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특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사실인력에 대한 인건비 안정을 위해 상시 점검에 나서고, 20% 이상 낮은 단가로 공공인력을 지원하는 등 인건비 안정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1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도·시·국·원, 시·군 등 부서별로 전 직원이 1회 이상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농촌일손돕기 중점기간’도 운영한다.

▶ 3면에 계속 **박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하나 된 대동세상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는 오월이다. 전국화, 세계화된 5·18. 5·18 단체, 국민들 간 이견이 있어선 안 된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선거 때마다 대한민국이 반으로 나뉜다. 이제부터 좌우 이념과 갈등에서 벗어나 하나 된 대한민국을 열어나간다. 온 국민이 서로 어깨 걸고 하나 되는 대동세상. 군부 독재와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외치던 오월 영령들의 명령이자 오월 정신이기도 하다. 또한 44주년 슬로건이 ‘모두의 오월, 하나 되는 오월’이기도 하다.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광장에 세워진 ‘대동세상군상’과 휘날리는 태극기. **김영배 기자**

‘모두의 오월’ 제44주년 5·18기념행사 ‘윤곽’

10개 마당·3개 무대에서 전야제
청년·청소년 기획사업 등 다채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 슬로건 아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는 3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언론간담회를 열고 5·18기념행사 추진 계획을 밝혔다.

5월17일 금남로 일대에서 개최되는 전야행사는 △시민참여난장 ‘해방광주’ △풍물극 ‘오월길맞이’ △가두행진 재현 ‘민

주평화대행진’ △사회적 소수·약자에 연대 메시지를 전하는 ‘광주선언 2024’ 등으로 구성된다. 오후 7시부터는 본격적인 전야제 공연이 10개 마당, 3개 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5월18일에는 전국 시민단체 등이 광주를 찾아 전국노동자대회, 국민대회, 대학생대회 등을 연다.

33개 시민공모사업과 전국 14개 광역 시도 행사, 33개 청소년 기념행사, 38개 협력사업, 3개 해외사업, 청년기획사업 등도 추진된다.

청년기획사업인 ‘청년PM(Project

Manager)’은 올해 신설된 핵심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김꽃비 PM이 ‘모두를 위한 오월공론장 만들기 프로젝트(Everything, May, All At Once)’를 통해 온라인 웹진, 소규모 오프라인 공론장 등으로 청년들의 오월 담론을 한데 모은다.

또 행사위는 ‘청소년사업단’을 구성해 △오월 민주광장 △10대, 교실 밖에서 오월하다 △대한민국 청소년, 광주와 네트워크 하다 등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는 5·18사업을 진행한다. ▶ 관련기사 5면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全南日報가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전남해외상설판매장

- 동남아시아** ONE MART
- 유럽** Sunrise Supermarkt, K-Shop
- 미주** 한남 Buena Park, 한남 LA, 한남 Torrance, 한남 Del Amo, 한남 New Jersey
- 호주** FREEZIUM MARKET, SEOUL MART

▶ 생명의 땅, 청정 전남에서 나고 자란 우수한 농수산물을 지구촌 곳곳에 알립니다.
▶ 골든힐은 수출에 관심 있는 전남소재 식품제조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골든힐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455-90 | T. 061.332.1998 F. 061.334.1997 | E. golden0311@naver.com